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11 호

백리

萬枝一根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영 섭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25년 4월 20일

|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홈페이지 : 사천이씨.com

우리 성관(姓貫)의 긍지(矜持)와 자존(自尊)



성균진사공파 제26세
대중회장 이 영 섭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우리 사천(동성)이씨대중회 종친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우리 종친회의 소중한 기록과 소식을 담은 뿌리 11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종친회 활동 소식은 물론, 우리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인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거론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씨족의 면면히 내려온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면, 우리 씨족은 선향(先鄉)을 경상남도 사천(泗川 : 古號 東城)으로 하는 사족(士族)으로서 1308년 고려조 25대 충렬왕 34년에 국자진사 송악군수를 지낸 식(軾)공을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시조공의 아들부터 증손자까지 대대로 국자진사 벼슬에 오르고, 이어 고손자인 5세 손 언(彦)공 역시 성균진사로 보승랑장이 되었습니다. 1372년(공민왕 21)에 언(彦)공의 아들 두 분 중 자(穰)공은 성균생원으로 담양교도를 지냈고, 육(穢)공은 생원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씨족의 세계(世系)는 상세해지고 파조(波祖)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1459년(세조 4)에 6세손 자(穰) 교도공(敎導公)은 강상공의 연회에서 받은 수서시(壽瑞詩)는 수많은 고관명현의 차운(次韻)으로 「수서시첩」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이 책은 문중의 상징(象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06년 11세손 경(經)참지공이 등과한 이래 1523년부터 1536년까지 13년 사이에 11세손 구암 정(楨)은 12세 소년으로 경상도 하과 장원급제, 참의공 룬(綸)은 문과 급제, 두(斗)·언즉(彦則)은 성균진사 합격, 을지(乙枝)·철석(哲石)·명석(明石)·문석(文石) 등 종형제 네 분의 생원시 동시 합격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36년(중종 31)에 구암은 25세 청년으로 문과별시 과거에 장원급제했는데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문중의 광영(光榮)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1570년(선조 3) 구암선생의 손자 13세손 호변(虎變)·곤변(鯤變) 두 형제가 나란히 문과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고, 곤변(鯤變)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이순신 장군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1583년(선조 16) 12세손 첨정공 영(英)은 정시(庭試)에 응시하여 무과에 등제하고, 1859년(철종 10) 14세손 송제공 규진(奎鎭)은 함안시(咸安試)에 장원하고 기미년 2월에 증광생원시에 합격하였으니, 씨족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성관의 긍지와 자존(自尊)을 이어왔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하겠습니까. 임진왜란과 이밖에 크고 작은 전란으로 선조의 많은 유적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세거지와 생물(生沒)을 알 수 없는 선조도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1771년 우리 씨족의 족보인 신묘보(辛卯譜)가 처음으로 발간되면서부터 1998년 무인보(戊寅譜)가 발간될 때까지 일곱 번의 족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씨족의 전사(前史)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를 거쳐 오면서 문중사 자료는 족보에 있는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수습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1973년 10월에 종친회가 구성되고 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8년에 씨족의 구심점(求心點)인 조원사(肇源祠)를 봉건하면서 문중사는 새천년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인의 뜻을 모아 봉건한 조원사는 문중의 자랑이며 대역사(大役事)였습니다. 구암학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주옥같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구암탄신 50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구암선조의 업적이 사천시에 재조명되고 있고, 2010년부터 매년 구암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사천시와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획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암총서 발간사업은 구암학과 사천문화 형성의 초석 다지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8번째 족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한글로 발간하여 우리 씨족의 역사 기록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합니다.

이러하듯 우리 대중회는 조상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식지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집인과 원고를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올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 경칩일에 조원사에서



조원사(肇源祠)

2025년 대종회 정기총회

I. 2024년 주요종무 보고

1. 2024년 조원사 춘계제향 행사 개최 결과

- 일 시 : 2024. 4. 21(일요일) 11:00
- 장 소 : 대종회 회관(사당, 일원재)
- 참 석 : 100명 정도(대종회장 임원 종원)
- 소 요 경 비 : 4,575,270원
대종회 지원 : 3,000,000원
자 체 경 비 : 1,375,270원
격 려 금 : 200,000원(대종회 감사 이상무,이태희협찬)
- 향촉대 5,670,000원
- 행사내용
 - 유 사 : 성균진사공파 문중
 - 초헌관 : 균진사공파 대표 이춘도
 - 2023년 주요 종무보고
 - 2023년 수입 지출 결산승인
 - 대종회 인터넷 전자족보 추진사항 보고
 - 기타토의(2024년 주요 종무보고)
 - 뿌리 소식지 발간(사업비200백만원)



2. 2024년 구계서원 춘계제향 개최

- 일 시 : 2024년 4월 3일(수요일) 10:00
- 장 소 : 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70명 정도
(대관대유교회 회원 사천이씨종인 등)



3. 2024년 제13회 구암제·회화대회 행사 개최 결과

- 일 시 : 2024년 6월 22일(토요일) 09:00
 - 한시대회 : 10:00 ~ 12:00(120분)
 - 회화대회 : 13:00 ~ 15:00(120분)
- 장 소 : 사천시 삼천포체육관
- 참 석 : 400여명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대종회장, 사천교육장, 삼천포수협장 등 전국에서 참여)
- 주 관 : 사천문화원
- 후 원 : 사천시, 사천시의회



4. 구암대상 전국 시조경창대회

- 일 시 : 2024년 4월 26일(금)
- 장 소 : 사천시청 대회의실
- 우리 대종회 50만원 및 화환 지원



5. 2024년 구계서원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24년 5월 29일(수요일) 10:00
- 장 소 : 사천읍농협 2층회의실(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여명 (구계서원대관대유계 회원)
 - 2024 구암학 학술대회 개최, 서원장의 이사장직무대행 건 등

6. 부산 화수회 참가 격려

- 일 시 : 2024년 6월 2일
- 장 소 : 해암 뷔페
- 참 석 : 화수회 회장 이상무 외 회원 70여명(대종회장 참석)

7. 제각 하수처리관 매설공사

- 위 치 : 조원사 경내
- 시 기 : 2024년 11월경
- 사업량 : L = 50m(깊이 약 2m)
- 정화조폐쇄공사 : 300,000원
- 마당 마사토 깔기 : 300,000원

8. 2024년 구암학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요일) 14:00
- 장 소 : 사천시 곤양향교
- 참 석 : 250여명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구계서원대관대유계 회원, 곤양향교유림회 회원, 사천이씨 종인 등)
- 주 최 : 사천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주 관 : 사천시 곤양면 주민자치회
- 발표주제 : 신재 주세봉(곤양군수)선생
 - 발표자 : 정우락(경북대) 장정수(강원대) 박영민(고려대)
 - ※ 행사참석 교수 등과의 만찬 - 대종회에서 제공 11명(대표항 횡집)

9. 구암총서 출판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24년 10월 14일(월요일)09:30
- 장 소 : 사천시장실(본관 6층)
- 참 석 : 10명내외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대종회장, 부회장, 대종회 이사, 구계서원장, 총무, 실무담당관 등)
- 대책회의 결과
 - 구암총서 출판 총사업비 : 13억중
 - 기존지출 : 8억(약 5년에 걸쳐 집행) 원고 완성
 - 금화확약 : 5억원을 3년간에 걸쳐 지원(집행)기로 결정
 - 수임(受任)기관(지출선)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10. 족보편찬사업 2025년 전반기 보고

목표 우리 족보는 종인의 역사 기록으로 먼 훗날까지 보전되어야 함. 바야흐로 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 방식이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 젊은이가 쉽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족보를 제작하여 우리 종인의 대다수가 활용하고, 그 자료를 인쇄하여 새 족보책으로 출판하여 배포하고자 함.

과정 및 예산

- 인터넷 족보의 외주(뿌리정보미디어, 2023. 8. ~ 2026. 8.까지 3년 계약)
-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개통 : 2023년 9월~10월
- 인터넷 족보 1차 작업 : 2023년 11월 ~ 2024년 2월말
족보등재 건 : 63건, 족보등재비 금액 : 1천1백만원
- 인터넷 족보 2차 작업 : 2024년 3월 ~ 2025년 2월말
족보등재 건 : 27건, 족보등재비 금액 : 7백만원
- 인터넷 족보 3차 작업 : 2025년 3월 ~ 2026년 2월말(예정)
- 족보간행 업무협의 2회
- 족보간행 설명 및 종인 위문 탐방 (회장)
지역 : 광양, 순천, 여수, 해남, 영암 등
광양 이 치과 이봉호 면담, 해남 종훈 면담
- 인터넷 족보 계약에 따른 결제금액 (총 계약금 5천만원 중)
 - 계약금 5백만원, 1차중도금 2천만원, 2차중도금 1천만원 합계 3천5백만원 결제.
 - 족보등재비 총 수입금은 1천8백만원.
 - 계약에 따른 잔금 1천5백만원 및 차입금, 족보예약금 등 앞으로 지출해야 할 2천2백만원의 금액이 필요함.
-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붐이 요구됨.
- 인터넷족보 많이 활용하기 권장

11. 대종회 관련 임원(이사회) 회의개최

- 개최횟수 : 3회
- 일 자 : 2024년 9월 1일(수)
2024년 12월 15일(일)
2025년 2월 23일(일)
- 장 소 : 조원사 일원재
- 안 건 : 대종회 당면사항 협의 및 기금확보에 따른 임원회비 납부협조



12. 2025년 구계서원 춘계제향 개최

- 일 시 : 2025년 3월 19일(수요일) 11:00
- 장 소 : 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70명 정도(대관대유계 회원, 사천이씨 종인 등)
- 초헌관 : 사천시의회 의장 김규현, 아헌관 : 사천곤양향교 전교



13. 2025년 구계서원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요일) 10:00
- 장 소 : 사천읍농협 2층회의실(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명 정도(구계서원대관대유계 회원)
- 안 건 : 예결산 보고 및 승인, 이사장 선출 및 제반 안건 결의

14. 구계서원 관련 임원(이사회) 회의 개최

- 개최횟수 : 4회
- 일 자 : 2024년 9월 21일(토)
2024년 10월 31일(목)정화작업
2024년 12월 7일(일)
2025년 2월 22일(일)
- 장 소 : 사천읍 아리랑식당
- 참 석 : 구계서원대관대유계 임원
- 안 건 : 당면사항 협의건



Ⅱ. 2025년도 주요종무 계획

1. 2025년 조원사 시조 및 선조 춘계 제향

- 행사일시 : 2025년 4월 20일(일)
- 행사비용 : 3백만원
- 유사 : 백인재 고읍문중
- 대종회 뿌리 발간인쇄비 : 2백만원

2. 환경정비사업

- 조원사 경내 피해 노거수 제거 작업 사업비 대책
- 일원재 천정 수리 대책 소요예산 8백만원
-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
목조 건물 건축 30년 경과로 전선노후로 전선 및 전구 등 교체

3. 전자족보편찬사업

- 인터넷 족보 3차 작업 : 2025년 3월 ~ 2026년 2월말
- 주요사업내용
 - 족보는 문중의 중요한 역사 기록임을 인식 제고
 - 족보 등재의 참여를 독려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2천2백만원) 확보대책 요망됨
 - 족보인쇄 방안
 - (1안) 전체 1질 인쇄
 - (2안) 1권과 해당 파보 인쇄 (전체 요구 종인 - 질 단위 주문)
 - 인쇄희망부수 파악 2025년 10월말 시한

4. 뿌리(소식지)등재 원고 수집

- 2026년 춘계제향시 발간할 뿌리의 원고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 : 부회장 이영근 <leeyggm@gmail.com>

5. 전자족보 주소(홈페이지주소)

- “사천이씨.com”

6. 2025년 제14회 구암제·회호대회 행사 개최

- 일 시 : 2025년 5월 10일(토요일) 09:00
 - 한시대회 : 10:00 ~ 12:00(120분)
 - 회호대회 : 13:00 ~ 15:00(120분)
- 장 소 : 사천시 삼천포체육관
- 참 석 : 400명 정도 예상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대종회장, 사천교육장, 삼천포수협장 등 전국에서 참여)
- 주 관 : 사천문화원
- 후 원 : 사천시, 사천시의회
- * 협조사항 : 종인들께서 본행사에 많은 참여 바람

7. 종중자산관리 기본법 제정 참여

- 단체명 : 한국성씨총연합회(대표 : 석민영, 78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7(태평로1가 세진빌딩)
종중법이 없어 각 문중마다 자산 때문에 각종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금을 납부해도 세제상 혜택이 전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성씨총연합회는 종중자산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종인들은 적극 참여 바람.
- 우리 대종회는 한국성씨총연합회 회원종중 가입 : 2025. 3. 11
- 대표자 : 사천(동성)이씨대종회 회장 이영섭(단체회원직위:고문)
- 종중가입비 : 40만원

참고자료 2024년 시조 제향 향족대 현황

파조명	성 명	향족대	파조명	성 명	향족대
백인재공파	이경환	50,000	화암종중		200,000
백인재공파	이권식	200,000	성균진사공파	이현식	50,000
백인재공파	이남수	100,000	성균진사공파	이호찬	100,000
백인재공파	이동근	100,000	우소재공파	이영갑	200,000
백인재공파	이봉춘	100,000	우소재공파	이영춘	50,000
백인재공파	이석부	100,000	우소재공파	이오수	100,000
백인재공파	이용수	100,000	우소재공파	이창문	50,000
백인재공파	이장근	40,000	참의공파	이상무	200,000
백인재공파	이점판	50,000	참의공파	이주호	300,000
백인재공파	이동수		참지공파	이선영	100,000
백인재공파	이기봉		참지공파	이성문	50,000
생원공파	이명규	100,000	참지공파	이태희	100,000
생원공파	이상석	100,000	첨정공파	이용덕	30,000
선무랑공파	이영근	50,000	첨정공파	이흥기	100,000
성균진사공파	이경수	50,000		대구청장년회	200,000
성균진사공파	이기호	50,000		합천·거창	500,000
성균진사공파	이성진	100,000		이종건	
성균진사공파	이승열	50,000	우소재공파	이대중	
성균진사공파	이영부	100,000	우소재공파	이순호	
성균진사공파	이영섭	300,000	우소재공파	이태원	
성균진사공파	이영오	100,000	생원공파	이남호	
성균진사공파	이외식	100,000	생원공파	이남주	
성균진사공파	이인덕	100,000	생원공파	이억식	
성균진사공파	이인찬	100,000		이천식	
성균진사공파	이준식	50,000		이영화	
성균진사공파	이철화	50,000	초헌관 헌금	이춘도	1,000,000
성균진사공파	이학식	100,000	소계		2,980,000
소계		2,340,000	합계		5,320,000

참고자료 대종회 임원회비 납부 현황

성명	2020.7월~ 금액	족보협찬	계	보수비	
회장 영섭	12,400,000	2,000,000	14,400,000	파조명	금 액
부회장 영근	650,000	1,000,000	1,650,000	참지공	8,000,000
기 명	300,000		300,000	진사공	5,000,000
경 구	100,000		100,000	참의공	8,000,000
규 현	100,000	300,000	400,000	첨정공	8,000,000
대 중	200,000		200,000	우소재공	8,000,000
덕 중	100,000		100,000	백인재공	8,000,000
기 명	500,000		500,000	성균진사	8,000,000
백인재		5,000,000	5,000,000	선무랑공	5,000,000
상 무	600,000		600,000	생원공	8,000,000
석 재	100,000		100,000		
선 영	200,000		200,000	계	66,000,000
성 진		100,000	100,000		
승 열	320,000		320,000		
영 갑	300,000	1,000,000	1,300,000	향족대	
영 규	1,300,000		1,300,000	2021	120,000
총무 영근	300,000		300,000	2023	7,010,000
오 수	630,000		630,000	2024	5,670,000
인 찬	200,000		200,000	영근 부회장	100,000
재 봉	100,000		100,000	오 수	30,000
정 배	200,000		200,000	계	12,930,000
정 섭	400,000		400,000		
준 용	100,000		100,000		
창 문	300,000		300,000		
춘 도	200,000		200,000		
태 원	600,000		600,000		
태 희	200,000		200,000		
형 환	400,000		400,000		
호 중	300,000		300,000		
효 중	300,000		300,000		
중 훈		60,000	60,000		
계	21,400,000	9,460,000	30,860,000		

※ 대종회 임원 63명중 납부자는 29명
대종회 회비계좌 농협 사천(동성)이씨대종회 351-0698-3320-43
족보편찬사업 계좌 농협 351-1285-4126-63

지난 해(2024년) 구암학 학술대회의 성과



구계서원장 문학박사
이 은 식

2024년 11월 1일 구암학 학술대회를 곤양향교에서 실시하였다.

작년에 관포 어득강선생에 이어 신재 주세봉선생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였는데, 많은 참석자로 인하여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포는 곤양군수로 부임하자 곧 퇴계를 초청하였다. 퇴계는 30대 초반으로 과거에 급제하기 전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학문진작의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방안으로 서원 창건과 유학적 출간을 그 실천방안으로 잡았다. 관포 후임으로 신재 주세봉이 부임하였고, 그때, 규암 송인수가 사천으로 귀양을

왔다. 당시 규암은 젊은 나이였고, 규암의 제자가 되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 사천에 모였다. 후일 관포·신재·규암은 성균관 대사성, 퇴계는 대제학. 규암은 부제학이었다. 이들은 서원의 창건 도서출간에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였다.

후일 신재는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소수서원을 창건하였고, 퇴계는 도산서원, 규암은 서악서원, 옥천서원, 구계서원을 창건하였다. 도서출간은 규암이 맡았다. 관포가 곤양군수로 부임하기 전, 그가 조정에서 올린 상소에 도서출간에 대한 글이 있다.

“책 한 권 구입하는데, 드는 가격이 명주 다섯 필의 옷감 가격과 같다고 하였으니, - 현재 시세로 300만원에 해당한다 - 당시 백성들은 서적을 구입할 엄두를 낼 수 없으니, 국가에서 출간을 하자” 고 건의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일 규암이 24종의 도서를 출간하여, 조선조 유학의 학문진작에 큰 공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선현들의 모임이 곤양에서 시작되었기에 학술대회를 곤양에서 실시하였다. 올해(2025년)는 퇴계에 대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포면에는 퇴계를 향사(香祀)하기 위해 건립한 작도정사(鵲島精舍)가 있다. 올해 『작도정사지 鵲島精舍誌』를 이 지역 유림들이 발간한다고 하니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다.

추측컨대, 내년(2026년)에는 구암학 학술대회 주제는 규암 송인수선생에 대한 내용으로 열릴 것이다. 규암이 제주목사로 제수되었는데, 시작하고 제주를 떠나자, 왕의 허락이 나기 전에 임지를 떠났다고 하여, 사천으로 귀양을 왔다. 4년간 사천에 있

었는데, 그 기간에 규암이 제자가 되었다. 규암과 신재는 조정에 같이 있을 때,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구계서원에서는 구암총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니, 사천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서적을 출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구계서원지』도 출간할 계획이다. 예산은 5억원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구암총서는 15권정도를 한 질로 엮어질 예정이고, 약 400질 출간하여 대학과 도서관 주요 연구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에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원이 확충되는 모양새이다. 폐쇄적이고 있는 우리나라 서원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구계서원이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고 1931년에 복건되었다. 이제 100년이 되어가니 건물 기둥이 썩어져 건물이 붕괴가 되는 조짐을 보인다. 경남도, 사천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수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폐허가 된 서원이 있고, 인적이 드문 서원이 많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면, 건물도 낡고 훼손되기 마련이다. 구계서원이 있는 현판이나 주련도 파손을 막기 위해 보관을 하고 새로 현판을 올릴 계획이다. 우선 풍영루 현판을 이씨 문중의 서예가로부터 글씨를 받아 제작하였다. 현판을 올리는 길일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에 주련의 글씨는 초서가 아니다. 초서로 된 구계서원의 주련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당에는 주련을 걸어놓지 않는데, 구계서원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현대인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서원이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습합(習合)해서 부활하는 전통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서양의 속담에 ‘신은 불러주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라는 말이 있다. 구계서원과 구암도 사천시민보다 후손이 먼저 불러주지 않으면, 메아리 없는 광야의 외침으로만 남는다.



대중회 명예회장
참지공파 제24세
이 선 영

龜巖學叢書에서 미리 보는 爲己之學과 爲人之學

구암학 연구 총서 발간사업은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구암학 연구 학술대회,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구암제, 2013년 2월에 개최된 구암탄신 500주년 기념행사 등 사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선비문화 행사가 단초(端初)가 되어 시작되었다.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구계서원장 이은식)와 사천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경북대학교 정우락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온 이 연구사업은 2017년부터 5개년을 목표로, 그동안 학술행사를 통해 나타난 구암(龜巖) 이정(李楨)의 역사적 업적을 살살이 재조사·번역하여 이를 구암학(龜巖學)으로 체계화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고, 2022년 동 연구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2년간 인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인쇄를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2025년부터 인쇄비가 지원되어 비로소 구암학 연구 총서 발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 공부하고 학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구암학 연구 총서가 발간되기에 앞서 구암 연구팀이 5년간 다섯 차례 문중회의에 보고하였던 구암학 연구 총서의 요지에 따라, 조선 중기 학자적 관료였던 구암 이정(李楨)의 학문 세계를 미리 더듬어 봄으로써, 현대사회의 후손들과 후학들이 이를 본받게 하고자 한다.

먼저 「구암집문록」, 「대관대유계시집」을 중심으로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구암의 제자들, 후학(後學)들 등이 구암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구암은 첫째, 학문하는 사람(學問人)으로 평가되었고, 둘째, 도덕을 갖춘 군자-선인(善人)으로 표현되었다. 셋째는 제자들에게 학문하는 이유를 爲己之學에 있음을 강조하고 爲人之學을 가르쳤다.

1901년에 진주, 사천 일대의 유림들이 구암별집을 간행하고, 이듬해 1902년에 대관대유계를 결성하였으며, 1904년에 불기당(不欺堂)을 건축하여 이때부터 해마다 석채례를 거행하게 되면서 유계에 참여한 유림 178명이 대략 2년의 기간 동안 평성(平聲) 경(庚)자 운으로 각기 시를 지어 1912년에 목활자로 「대관대유계시집」을 인쇄하였는데, 이를 보면 구암은 조선 말기에게까지 제자들의 追崇을 받아왔다.

구암 이정은 조선 중기 걸출한 학자이자 관료 문인으로서 성리학사(性理學史)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거니와, 특히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 여러 곳에서 서원 건립과 도서 간행에 힘써 인재 양성과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자신이 몸소 여러 가지 전적을 편찬하거나 교정하거나 간행하였다. 구암 사후 구암의 절친한 친구였던 정두(鄭斗)가 편찬한 <구암행장>에 의하면 그는 생전에 중국의 성리학 서적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간행이 미진한 16종의 서적을 간행하고, 4종의 서적을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비록 지방관으로서 관(官)의 재력과 열음(列邑)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에 일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업적으로는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이었다.

구암은 그의 저서 성리유편 발문에서 “... 이 책을 보는 자들은 소략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근(卑近)하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구이리학(口耳之學, 들은 것을 자기 생각 없이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이 고작인 학문)의 바탕으로 삼지 말고, 표절하지도 말라.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힘써 나아가 송나라 유학자들의 글을 읽는 다면 경박함을 바로 잡고 나쁜 습관을 없애 고명(高明)하고正大(正大)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약간의 도움이 없겠는가.” 하였고, 이종균(李中均)의 중간 발문에서는 “선생은 일찍이 성리전서(性理全書)를 구하여 마침내 손수 가장 긴요한 것을 가려 뽑아 책을 편찬하였다. 맹자께서 말하지 않았던가, 널리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장차 이를 돌이켜 요약하여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의 이 책은 아마도 돌이켜 요약하고자 한 것이리라. 성리학이 전하지 못한 지 오래되어 천하가 어리석어 나 아갈 방향도 알지 못한다. 이때 성리유편의 구본(舊本)을 얻어 중간하여 선생이 지닌 가혜(嘉惠)의 뜻을 넓히고자 하니 하늘의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경주읍지」, 「동경잡기」, 「동경통지」는 경주지역 지리지이다. 여기에는 구암이 1561년 서악정사를 세워 설총, 최치원, 김유신을 제향하고 후학을 양성한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1670년에 간행한 「동경잡기」 권1 학교편에 이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동경통지」 권9 역대수관(歷代守館) 조에는 서악서원 기록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암 선정비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경신년(1560) 음력 9월 22일 예조참의로 오다. 소리를 지르거나 낚시를 바꾸지 않아도 백성이 절로 교화되었다. 지날수록 잊지 못하여 비석을 세웠다.”

구암은 1546년 9월 35세 때 숙천도호부사(肅川都護府使; 현재 평안남도 숙천군)에 제수되었으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보임(補任)을 사양하고 근읍을 청하여 선산군수가 되었다. 「일선읍지」 권1 관수(官帥) 제4 읍지 편에 【이정(李楨) : 사천인(泗川人)이다.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선비를 양성하였다. 정사(政事)에 명교(明教)를 우선으로 하였다. 호는 구암(龜巖)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국조보감」과 함께 지지(地誌) 소재 자료를 살펴보면 구암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던 모든 곳에서 학업을 일으키고, 선현을 기리고, 민생을 부지한 목민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명소를 건립한 행정관이었고, 후인의 모범이 되는 스승이었다. 이런 모습은 사서(史書)와 지지(地誌)라는 기록을 통해 이어지고, 명승과 고적이란 구조물로 현존하고 있다. 기록은 정진에 새기는 것이고 현존하는 구조물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물이라는 점에서 구암의 행적은 몸과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료 ; 사천(동성)이씨사 총람 552~557면, 2020 참조).

구암은 24세 때인 1535년에 사천에 유배해 온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다. 이 때 구암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정두(鄭斗)가 구암의 행장에서 “이로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바, 아마 이때 성리학을 처음 접하였을 것이다. 아직 성리학의 기반이 공고하지 않았던 당시에 규암(圭菴)은 성리학 보급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암은 자연스레 「중용」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혹 이전에 「중용」을 읽었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중용」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중용」은 주자가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 새롭게 정비한 교과서인 「사서(四書)」 가운데 성리학 이론에 가장 근접해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구암은 규암을 통해 성리학에 입문하였고 퇴계에게 나아가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아 학자로서 대성하였다. 그러므로 구암의 학문은 규암에서 시작하여 퇴계에서 마쳤다는 지적이 있게 된다.

성리학이 비록 여말에 수입되었으나, 「중용대전」은 그 당시 지식인들 누구나가 읽고 사색하는 대중적인 책은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구암은 「중용대전」의 세주(細註)들을 꼼꼼히 읽고, 조선에서는 쉽게 구해보기 어렵던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참고하여 「중용」의 교의를 성리학으로 파악하여 작시(作詩)하였던 것이다. 구암 「중용」학의 일차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성리학이 보편적인 학문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 체계로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누구나가 보는 책이 아니었던 「중용대전」과 「주자어류」를 참고하며 「중용」을 깊이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자료 ; 사천(동성)이씨사 총람 503~505면, 2020 참조).

이렇게 구암(龜巖)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을 얻고 벼슬을 하였으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문을 계속하여, 그 시대 유학자 중 가장 많은 성리학 서적을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서원(書院)을 세워 학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학문은 주어진 고유의 관직과는 별도로 구암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터이지만 백성을 교육하고 教化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그 당시 높은 벼슬을 한 사람 중에 몸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위기지학이 없이 위인지학만 하는 벼슬아치에 대해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천 5백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의 헌문(憲問) 편에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학문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라고 기록하고, 학문을 하는 이유를 크게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즉 공자는 학문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爲人之學)으로 구분하여古今으로 비교하였지만, 이 말씀은 16세기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와서도 인재 등용을 위한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직업자격을 제한하는 전문공인자격시험, 취업시험, 대학입학시험, 석·박사 학위취득 과정 등에서 왜 공부를 하고 학문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문을 던져보면 위기지학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안정적으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전문직 국가자격자, 기업인, 학생 등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를 가르치는 대학원은 학문의 이유 목적과 수단이 되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깊은 뜻을 음미해 볼 일이다.

대관대 복원 및 구암기념관 건립



성균진사공파 제27세
이 승 렬

1. 대관대는 사천시 중요 문화재로서 복원

대관대와 대관대서재는 구암 이정선생이 1569년 선조 2년(기사년)에 몸소 창건한 서재로써, 만년에 학문을 강구(講究)하고 후학들의 교학(敎學)을 목적으로 세운 “정관대와 구암정사”로 1569년 퇴계 이황선생은 정관대와 구암정사에 오시어 대(臺)와 정사(精舍)를 돌아보시고는,

이 대는 “조용히 사물을 완상할 곳이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窮究)하고 세상을 크게 내다 볼 곳”이라 하여 정관대(精觀臺)를 대관대(大觀臺)로 그리고

구암정사(龜巖精舍)를 대관대서재(大觀臺書齋)로 고쳐 부르도록 한 사천시의 귀중한 문화재이다.

사단법인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는 2002년도부터 구암 이정선생의 유학사상을 조명하기 위하여 사천시와 사천시 문화원, 관내 향교 등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구암학 학술세미나와 구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천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사천시는 2008년에 진주경상대학교 박물관에 구계서원 대관대 정밀지표 학술조사, 2010년에 경남문화발전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조사단의 종합 고찰 및 의견을 살펴볼 때,

1) 고 문헌 분야

구암 이정(1512-1571)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을 증유하면서 당대에 퇴계 문하의 후배학자로부터 추앙을 받았다고 입증하였고,

2) 고 건축 분야

현재의 구계서원 뒤쪽 만죽산의 해발 118~125m 전후되는 곳에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물지 2곳을 확인하였다. 건물의 규모와 형식은 현재 건물에 대한 자료를 찾았는데, 고지도 등에 나타난 자료, 조선조 문헌 등으로 살펴서 규모와 형식을 추정할 수 있으며, 기반부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건물 등을 복원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대관대는 퇴계와 구암이 같이 논의하여 건축하고 이름을 지었으나, 대관대서재는 구암선생이 건립하였다. 그 후 구계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을 적에도 이 건물들이 서원과 같이 존재하였으며 서원이 훼손된 후에도 서원의 역할을 담당한 건물이므로 대관대와 대관대서재가 복원되어야 구계서원이 본래의 규모로 갖추 수 있다고 하였다.

3)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분야

경남에 현존하는 서원 중 구계서원이 사액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시설로 남아 있다.

사천시와 사천문화원, 구계서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대관대를 전 모습대로 복원하여 우리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그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구암선생 일대기 기념관 건립 기념관 건립

사천이 낳은 국현 구암(龜巖) 이정(李楨) 선생은 그 시대에 명성을 떨친 퇴계(退溪) 이황(李滉), 남명(南冥) 조식(曹植), 신재 주세붕과 같은 사우로서 조선조 명종 때에 문신이고 학자이며 조정에서 명성을 떨친 사천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임지마다 칭송이 자자하며 대사헌에 제수되어 임금에게 학문권장 상소를 올렸으며, 성리유편 등의 유학서적의 편찬, 풍속 교화, 후학 계도와 네 임금을 섬기며 3사 요직에서 명망을 쌓았으며 벼슬 중에도 학구에 열정적이었고 또한 선정을 베풀어 목민관으로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진솔한 생활을 글로 표현하여 시로 남기신 참 선비의 상을 남기신 분이였다.

선생께서는 돌아가는 동안 조상에게 3대를 추영(아버지에게 가선대부[종2품], 할아버지에는 통정대부[정3품]를 증조할아버지에게 통정대부[정3품]를 봉함)하는 광영을 드리고 예후에는 현조로써 공경을 받았으며 가문에는 문벌을 더함으로 선생이 이룩한 아름다운 덕화가 아니었던가! 또한 선생은 학식과 지식, 덕망과 교양을 완비하신 분이시며, 충신이요, 효자요, 교육가요, 학자이며 행정관료이면서 시인이요, 문장가요, 저술가이며, 여행가로서 평등 위민(爲民) 위봉(爲奉)하는 지도자로서 앞장선 선구자였다.

이 훌륭한 선생의 위대한 뜻을 받들고 기리기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함으로써 현재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암 선생의 일대기를 전시하여 효행이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암선생 기념관(紀念館)을 건립(建立)할 필요가 있다.

3. 대관대 복원 및 구암기념관 건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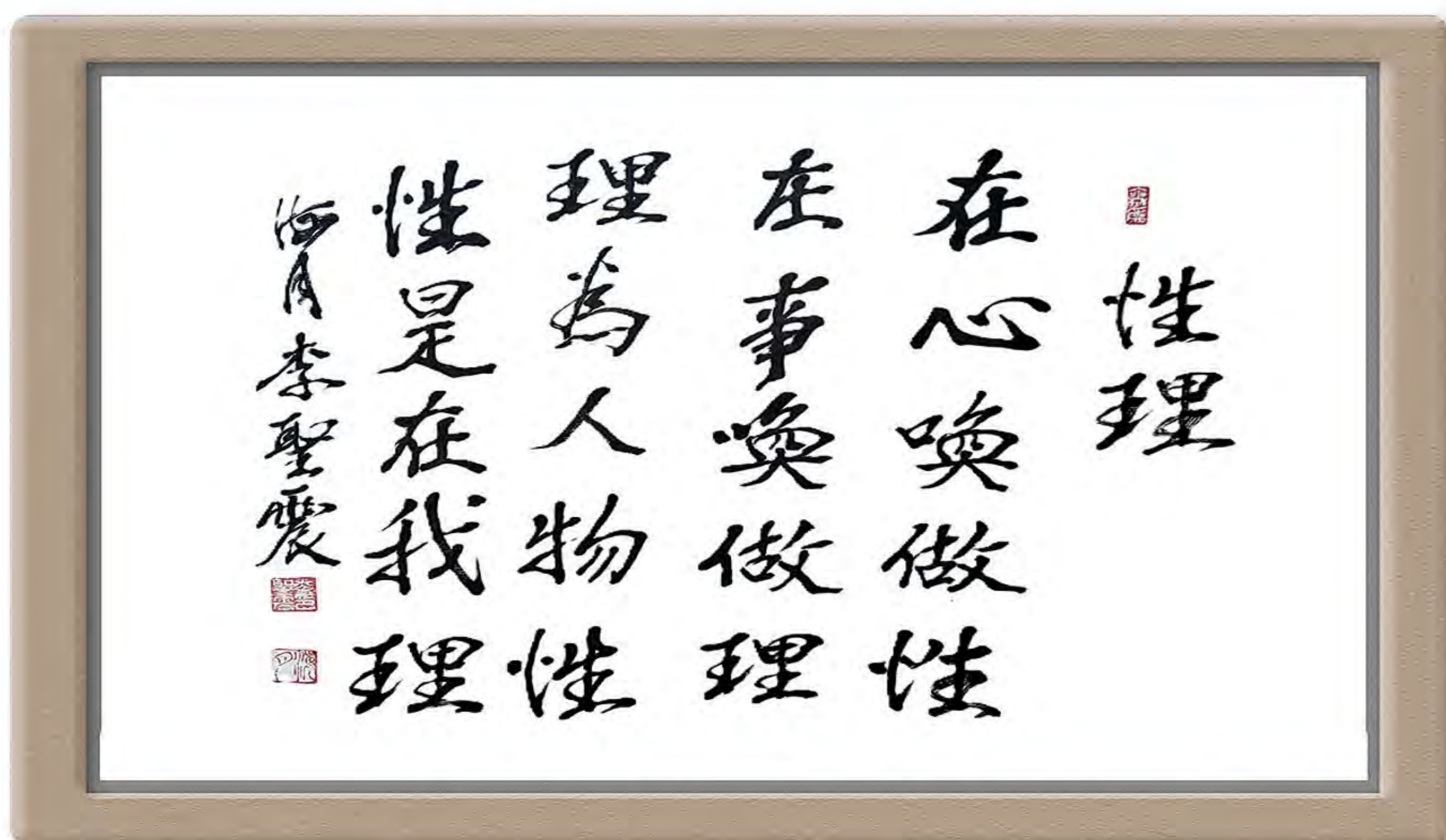


대관대와 대관대서재가 복원되고, 구암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현재의 구계서원이 제대로 규모로 갖추 수 있으며, 전 모습대로 복원하고 새로이 건립되어 사천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원되고 건립되면 그

의 행적이 알려지면 영남의 유학사가 올바르게 정립되며, 사천의 인물, 경남의 인물로 알려진 구암이 현장되어 지역민의 자존심을 일으킬 것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문화관광의 중요한 장소로 제공될 것이다.

성(誠)과 리(理)



龜巖 이정(李楨) 선생詩 성(誠)과 리(理)

在心喚做性 (재심환주성)
마음에서는 천성(天性)이라 부르고

在事喚做理 (재사환주리)
일에 있어서는 리(理)라고 부르네

理爲人物性 (리위인물성)
리(理)는 인간과 사물의 성(性)이 되고

性是在我理 (성시재아리)
성(性)은 나에게 존재하는 리(理)로다



성균진사공파 제26세
이 성 진

성(誠)과 리(理)는 유학(儒學)과 동양 철학에서 중심 개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誠)은 진실성과 정직을 의미하며,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상태를 뜻한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과 완벽성을 나타내며, 특히 조선 시대 성리학에서는 성(誠)을 인격 완성을 위한 핵심 덕목으로 삼았다. 주자의 철학에서는 성(誠)이 우주의 본질적인 진리와 연관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본연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리(理)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뜻한다. 리(理)는 우주와 자연, 인간의 본질적 구조와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리(理)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성리학에서는 리(理)를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로 보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리(理)를 탐구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리(理)의 탐구는 지식과 도덕적 성취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성(誠)과 리(理)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성(誠)을 통해 리(理)를 깨닫고, 리(理)를 통해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 동양 철학에서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龜巖 이정(李楨) 선생의 사상은 그의 학문적 업적과 그가 말았던 벼슬, 그리고 그의 행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학문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려 노력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그의 시(詩)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마음에서는 천성(天性)이라 부르고, 일에 있어서는 리(理)라고 부르네.”의 표현은 『중용(中庸)』 제1장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대한 소주(小註)에서 주자(朱子)가 “마음에서는 천성이라 부르고, 일에서는 이치라고 부른다.(在心喚天性 在事喚做理)”고 하였던 것을 활용하였다.

또, “리(理)는 인간과 사물의 성(性)이 되고, 성(性)은 나에게 존재하는 리(理)로다”의 표현은 『중용(中庸)』 제1장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대한 소주(小註)에서 북계진씨(北溪陳氏)가 “대개 리(理)는 천지간의 인간과 사물에 공통된 이치를 널리 말함이요, 성(性)은 나에게 존재하는 리(理)이다.(蓋理是汎言天地間人物公共之理 性是在我之理)”고 했던 것을 활용하였다.

[편집자 주]



참지공파 제26세
이 병 오

우리 집 기록 문화 소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랑방 설경(시렁) 위에는 나무 껍데가 있었는데 항상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어쩌다 한번 열라 하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어 펴 보시고는 정성스레 다시 말아서 보관하시고 다시 잡았다. 할아버지의 증조(曾祖)인 휘(諱) 윤(潤)자 필(弼)자 할아버지(제21세)의 교지(敎旨)와 그와 관련한 차첩(差帖) 그리고 완문(完文)이며, 이 기록물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여기 조심스레 우리 집 기록문화를 소개한다. 용어의 역사적 내용은 인터넷 자료를 옮겼고, 해설은 비전문가인 편집자의 소견으로 대신한다.

1. 교지(敎旨)



조선은 국초부터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교(敎)’라고 칭하였다. ‘지(旨)’는 여기에 담긴 국왕의 의중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敎)’를 말할 수 있는 자는 형식상 국왕 한 사람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자·종전·대비 등의 말씀을 교지로 명명한 기록도 종종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글자에는 엄밀한 구분이 있었다. 즉 종전이나 대비의 말씀은 ‘내지(內旨)’, 세자의 말씀은 ‘영지(令旨)’로 구분하였다. 1443년(세종25)에 국왕이 “지금부터 모든 전교(傳敎)하는 일은 모두 교지로 칭하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다(『세종실록』 25년 8월 29일).

교지는 국왕의 명령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였지만, 특정 종류의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 등을 사여(賜與)하는 문서는 첫 행에 교지 두 글자를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은 수취자의 이름과 사여(賜與)내용을 적은 후 ‘~자(者)’로 마감하고 발급 연월일을 적었다. 발급 연대 위에 찍은 어보(御寶)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즉 관직을 임명하는 고신(告身) 또는 교지(敎旨)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와 생원·진사시 합격 증서인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인터넷 사전에서]

[내용]

교지(敎旨)

이윤필(李潤弼)을 품계(品階)는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관직(官職)은 충무위(忠武衛) 부사용(副司勇)에 명(命)한다.

광서(光緒)12년(1886년, 高宗23年) 3월

[참고자료]

이윤필(李潤弼) : 사천(동성)이씨 21세, 字는 경서(敬瑞), 1826년(丙戌)생, 당신의 10대조로서 남명의 류두류록에 나오는 號가 매강(梅岡)인 휘(經)자 할아버지가 있다.

선략장군(宣略將軍) : 조선시대 종4품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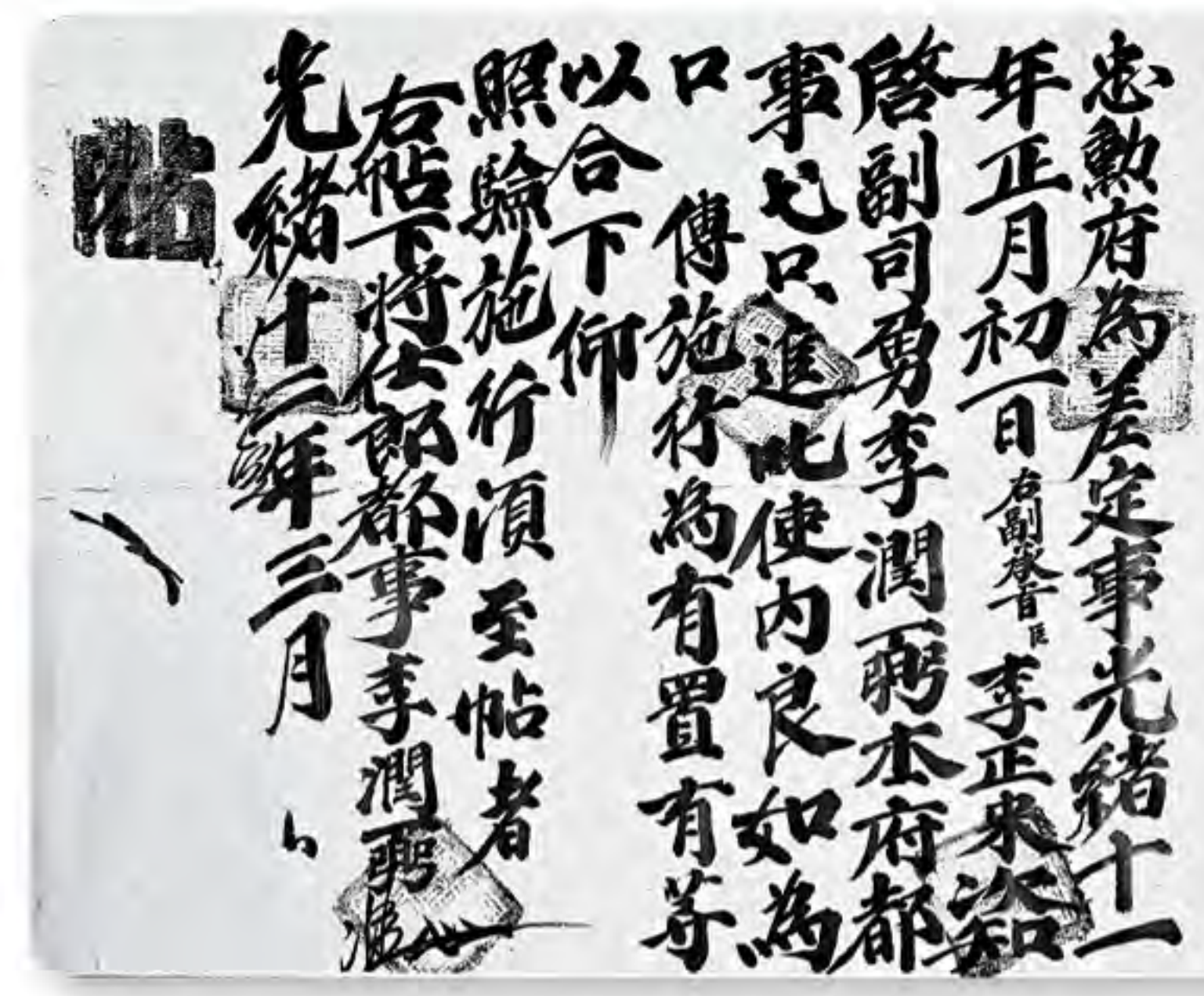
충무위(忠武衛) :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五衛) 중 후위(後衛).

행수법(行守法) : 직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품계가 높더라도 낮은 관직의 직위에 있을 수 있었고, 품계가 낮아도 높은 관직의 직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관직명의 앞에 행(行)과 수(守)를 써서 나타내었다. 행(行)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을 때 붙이며, 수(守)는 반대로 관직이 품계보다 높을 때 붙인다. 예를 들어 龜巖 李楨 선조는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수(守) 경주부윤(慶州府尹:종2품)이었다.

2. 차첩(差帖)

조선시대 정직(正職) 관원 임명장에 직사(職事)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祿)이 주어졌지만,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祿俸)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差帖)이었다. 차첩에는 국왕의 결재를 받은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官衙) 장(長)의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었다.

구전 차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따라 작성하되 기록 방식에 일정한 투식(套式)이 있었다. 형식은 첫 부분이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



事)”로 시작하고, 이어서 승지가 담당하여 국왕의 구전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다. 임명 내용을 기록한 후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양조협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썼다. 본문 다음에는 수취자, 발급 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찍었다. 고신(告身)에 사용하지 않는 이두(吏讀)를 구전 차첩에 쓴 것은 문서의 격이 고신(告身)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구전 차첩의 임명 내용은 산관(散官)의 언급이 없이 직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전 차첩의 발급처는 이조·병조·충훈부·충익부 등이며, 임명 대상은 7~9품의 무록관 및 무품 군관(無品軍官), 문음(門蔭) 및 공신 자손의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직역을 마친 후 나랏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사를 원하는 문음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사전에서]

[내용]

충훈부(忠勳府)의 차정사(差定事, 사무 배정)

광서(光緒)11년(1885년, 高宗22年) 정월 초1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정래(李正來)가 담당하여 시행한다.

부사용(副司勇) 이윤필(李潤弼) 충무위(忠武衛) 도사(都事)가 직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전시행(口傳施行)하였으므로, 마땅히 우리러 살펴보아서 첩(帖)이 당사자에게 이르게 하라.

이 첩(帖)을 장사랑(將仕郎, 종9품 位號)인 도사(都事, 종5품관직) 이윤필(李潤弼)에게 내리니 이를 따르라.

이를 인준함(준자, 准此,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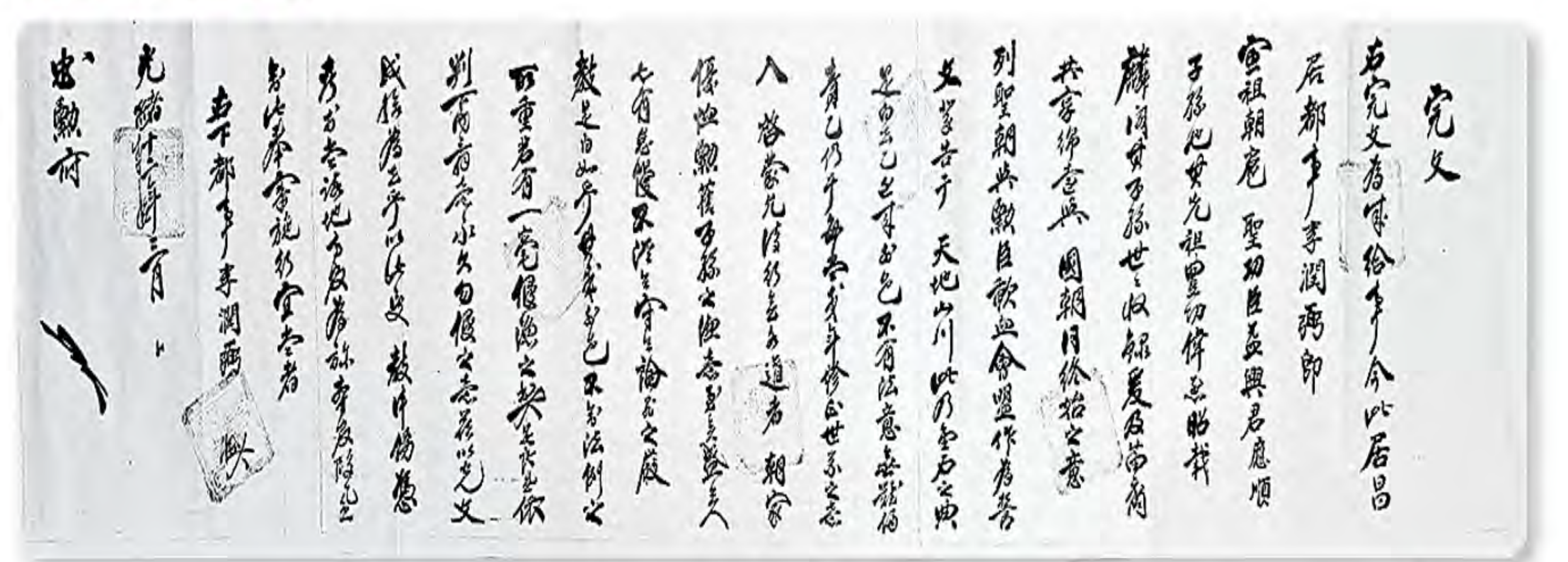
광서(光緒)12년(1886년) 3월 차정(差定, 사무 배정, sign) 첩(帖) 담당자(sign)

[참고자료]

충훈부(忠勳府) :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 즉 공신(功臣)하고 그 후손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지금의 국가보훈부 격이다.

구전시행(口傳施行) : 충훈부(忠勳府)에서 임명하여 승정원(承政院)으로 보내 왕에게 재가를 받아 임명

3. 완문(完文)



완문(完文)은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지며,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때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따라 발급하게 된다.

이 완문(完文)의 기두(起頭)는 “右完文爲成給事(우완문위성급사-이 완문은 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함이다.)”로 되어 있고, 결사(結辭)는 “知此奉審施行宜當者(지차봉심시행의당자-이를 알고 잘 살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로 되어 있다.

완문(完文)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방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완문 중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사전에서]

[내용]

광서(光緒)11년(1885년, 高宗22年) 3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거창에 사는 도사(都事) 이윤필(李潤弼)에게 발

급한 완문(完文)으로서 위 교지(敎旨)와 차첩(差帖)에 대한 증명서로 보인다. [편집자 주]



참의공파 제25세
이 준

도깨비



전설로 전해오는 우리 이야기 중에 가장 신나고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도깨비’ 이야기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기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실제로 영웅적 능력과 천재적 지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친근한 감성적 도깨비 로봇이 출현할 것 같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중 하나가 고갯길을 넘는 사내와 씨름하는 도깨비다. 어떤 사내가 어스름한 저녁에 고갯길을 넘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장정 모습의 도깨비가 나타나 씨름하지 않으면 고갯길을 넘을 수 없다며 가로막는다. 마지못한 사내는 도깨비와 씨름을 시작하였으나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사내는 꾀를 내어 “어, 날이 새네!”라고 말했다. 바로 이 소리에 도깨비가 놀란듯 움찔하자 사내는 얼른 도깨비를 쓰러트렸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취령쿨로 도깨비를 소나무에 꽂꽂 묶어두고 얼른 고갯길을 넘어 집으로 갔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사내는 금급하여 도깨비와 씨름하였던 고갯길 소나무 밑으로 가보았다. 소나무에는 오래된 몽당 빗자루만 묶여 있었다. 이외로도 흑부리 영감, 여자도깨비, 도깨비방망이, 닳냥 도깨비, 장승도깨비 등 여러 유형의 도깨비들이 있다. 이런 무궁무진한 도깨비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우

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도깨비는 헛것, 꾀것, 귀매, 허주, 뜯것, 독각귀, 독각대왕, 망랑, 망향신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어떤든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도깨비는 우리 일상의 것을 의인화하여 우리와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한다. 물론 간혹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는 도깨비도 있지만, 대개 장난을 친다거나,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귀결은 항상 권선징악의 응보를 분명히 하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활동하며, 내기를 걸고, 항상 술 취하여 뽕가를 먹고 있고, 노래부르며 춤추거나 유머를 내기를 즐긴다. 그리고 어려운 보를 막아주는 등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묘사된다. 도깨비는 초월적 존재이기는 하나 결코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진 인간과 관련 없는 존재는 아니다. 이 초월적 도깨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반면 일본의 요괴(妖怪)는 늘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중국의 귀신(鬼神)들은 요사스럽게 사람을 홀리고, 구미(歐美)의 악령(惡靈)들은 사람들의 영혼과 몸과 집안을 무지막지하게 멸살하고 있다.

이런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에서 외국과 다른 우리 문화의 여유와 편안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넉넉한 정신세계를 도깨비 전설들에서 느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귀신들을 때어 내고 멀리 보내버리려는 의식(儀式)과 제전(祭奠)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문화는 영혼들을 불러들여 함께 어울리는 특성을 보인다.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신을 불러들여 피붙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굿판을 열어서 서러운 이들의 영혼을 불러내어 위로(慰勞)하여 토닥여 주는 푸닥거리를 한다.

하여 해맑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시는 제사에는 맑은 기운이 발발하여 좋은 운기(運氣)가 모여 쌓임은 저절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다. 뇌과 연구와 양자 얽힘 가설 등을 살펴볼 때, 도깨비는 그냥 지어낸 것이고, 귀신이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 어쩌면 성급한 것일 수도 있겠더라는 생각이 든다.

산전(山戰) 수전(水戰) 공중전(空中戰)



우소재공파 제27세 이 광 문(諸名 문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개 모임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모임들은 매우 다양한 인연으로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재경 합천'(在京 陝川)이란 인연으로 전직 교육장, 퇴직 교수, 예비역 육군 영관급 장교를 역임한 80대(代) 4명이 매월 한 번씩 만나 점심을 먹고 헤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4년 1월, 이런 무의미한 만남 보다는 더욱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하루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의견들에 다양한 실내 스포츠가 있지만, 스크린 골프(Screen Golf)가 어떠냐고 나에게 묻길래, 한 번도 쳐 본 적은 없지만 배우는 처지에서 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자신만만한 나의 운동 신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득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각났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골프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한 번도 골프채(Golf Club)를 잡아 본 적도 없고, 또 가장 연장자인 내가, 겁도 없이 구력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하고 걱정하며, 다음 모임을 2월 중순으로 결정하고 헤어졌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세분 중 한 분이 저에게 하루 지도를 해 주겠다는 연락에, 그 전날 밤은 81년 만에 골프를 처음 경험하는 두려움과 설렘에 밤잠을 설쳤고, 더디어 2024년 2월 2일 골프채 용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들은 후 곧장 나와 지도자는 스크린 골프(Screen Golf)를 시작했지요.

골프채 선택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요술의 골프공은 좌, 우 절벽과 산(山)속(OB; Out Of Bounds), 아니면 첩병(Hazard), 또 모래 구덩이에 펍(Bunker Shot), 그래도 온 힘을 다해 그린(Green) 주변에 올려, 홀(Hole)을 향해 공을 치면, 이쪽저쪽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Approach) 하다 보면, 캐디(Caddie) 음성이 "xxx플 보기"("***ple Bogey), "더블 파"(Duble Par)라 하는 데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는 양파(Duble Par)니까 내려오라 했고, 파(par)와

양파(Double Par) 소리에 쪽파인지 대파인지 정신이 없었지요. 사실 저는 골프 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시작했고, 이리하여 난생처음으로 18홀에 121타, 4시간 이상 걸린 시간의 대가로 점주한테 화를 바가지로 받았지요. 그 이후 2월 정

기 모임 첫 스크린 골프(Screen Golf)는 제가 3타를 줄였다는 것 외는 기억이 없으며, 이날의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긴장 부담 압박으로 그 후 이틀 동안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살을 크게 앓았어요.

세월이 지나 글 쓰는 오늘이 2025. 2. 2.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골프 동영상 속에 빠졌던 것은 제가 잘해 보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의 부족한 골프 지식 때문에 함께하는 팀원분들에게 피해를 줄이자는 마음이 가장 컸지요. 동영상의 이론과 실제 체험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 연습하면서 영상에서 얻은 이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홉 번째 치는 날, 파(Par)3, 열한 번째 파(Par)4 홀에서 첫 버디(Birdie)를 하고, 파(Par)5 홀에서는 언제인지 기억이 없네요. 물론 이때는 난도가 가장 낮은 레드티(Red Tee)에 비기 너(Beginner; 왕초보) 단계에 코스(Course)와 그린(Green)도 가장 쉬운 골프장을 선택했지요.

얼마 전 2024년 12월 2일 배운 지 10개월이 되는 날 지도자(권오실 ; 전 합천군 교육청 교육장)와 함께 옐로우 티(Yellow Tee)에, 난이도 세미프로(Semi-Professional; 준프로) 단계에서 83타를 쳐서 "기적(奇蹟)이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저의 드라이브(Driver) 평균 비거리는 180여m이고 최대 비거리는 240m입니다.

스크린(Screen)에 비치는 푸른 파도의 밀림 소리, 영롱한 에메랄드 빛 명경지수(明鏡止水), 끝없이 펼쳐지는 가슴 설레게 하는 초원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속 터지는 골프공은 허공만 날아다닙니다.

이제 스크린 골프장은 국내 곳곳에 대중화되어, 골퍼(Golfer)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의 공유물로 탈바꿈하고 있지요. 81살의 골프 어린이가 처음으로 힘들었던 양파(Duble Par)와 대파 소동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보다 간단한 언더파(Under Par)의 기약 없는 그날을 향하여, 산戰(Out Of Bounds), 수戰(Hazard),空中戰(Approach, Bunker Shot)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지공파 제24세 이 기 명

“나이 80”



1. 잘 살았을까?

어제 비바람 몰아치더니 오늘은 햇님이 반기네. 우여곡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살이 고군분투. 힘든 일 지나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우연 잊고 세숫대야 물에 꽃을 띄우고 발 씻어 주더이다. 이건 꿈이야. 아침에 눈 뜨니 일이 시작되네.

인생의 굴곡 속에 살다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 건강이야.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며 모두가 가는 인생길. 고개를 넘어도 또 남았네, 남았어. 너와 함께라면 모진 고난 험악 역경 세상살이 굳세게 살아가겠네. 응원해 주는 사람 있다면 여보 당신 힘내요. 사랑해요.

세상살이 호락하더냐? 멍들지 않는 인생있더냐? 역전인생 세상일 흥망성쇠 돌고도는 인생. 어제는 낯은날 오늘은 봄별이다. 일하기 좋다. 노력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고 내일은 보람을 만들고, 멈출 수 없는 인생 고뇌하는 인생아! 일어나라.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길 어쩌다 쪽박이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 순탄치 않아 그래도 배고픈 가난 물리친 거 있다.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하는데 삶의 과제가 남아있어 일손을 놓지 못하고 눈으로 밭으로 이런저런 고생 사연 슬픈 사연 물어버리고 미소 짓네.

언제 한번 가슴 열고 울어나 볼까? 물어버리기엔 물어버리기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소리내어 울어 볼 날이 올까? 고생 끝에 행복, 겨울이 가니 봄날이 왔네, 왔어. 잘사는가? 우리 저마다 힘대로 깨끗하게 살아왔잖아. 그럼 그럼 몇 굵이 인생길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긴해도 이만하면 잘살았다고, 내 마음 다독이며 애썼다 애썼다 위로하고 싶어요. 집집마다 주택개량 자동차가 마을 안길까지 빙빙. 그렇기 때문에, 이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잘살았다고, 잘 살았노라고 승승황황이다.

2025년 3월 11일

2. 나 다스리기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나서지 않도록 소극하고, 선(덕 선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도록 합니다. 잘할 마음에 몸을 단련하며, 눈은 사물을 잘 관찰하며, 입은 착한 말 하며, 손발은 조심스럽게 부지런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게들랑 나의 행위는 어떠하냐? 반성할 기회로 삼고 신중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사물의 이치와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바로 잡고 우수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좋은 상태, 새 마음으로 일합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재능에 의한 관심 관찰로 노력대로 능력대로 전문가 됩니다. 연거푸 하고 또 합니다. 아이 힘들어! 삶은 힘들어야 하는 것. 힘들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취하겠는가?

건설한 생각으로 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열심히 성실히 이런 노력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알려 깨우치며 성장합니다. 이에 교훈을 얻고 경험이 쌓이고 터득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로써 창외와 아름다운 삶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에서 안정과 평화가 생겨서 희망 기쁨 보람을 만나게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우소재공파 제25세 이 영 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설날의 참뜻을 생각하며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한다. 2025년 설은 예년에 비해 매우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해인 것 같다. 설은 '사린다. 사간다.' 라는 옛말에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한다.' 의 뜻하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이다. 즉 설날은 일 년 내내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이라는 것이다.

설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족의 날로 지정하여 이후로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아직도 설날을 구정(舊正)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라는 뜻이다. 구정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혼과 열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이다. 조선총독부는 우리의 말과 글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았으며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때부터 '설' 도 구정으로 격하하여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려 했다.

이제부터는 꼭 설날이라 하고 "설 잘 쇠십시오." "설 잘 쇠셨습니까?" 로 불러 주어야 할 것이다.

어릴적 설의 추억으로는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새 옷을 입어보고 새 신발도 신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떡국은 나이 한 살 더 먹으라는 게 아니라 희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고 만든 음식이다.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다. 참고로 나이는 동짓날에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즉 순백은 하얀 계절에 흰 한복을 입고 흰 떡을 먹으며, 묵은 그림을 버리고 하얀 도화지에 한 해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설을 잘 쇠고 한 해의 아름다운 그림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을 것이다.

설날의 바른 인사 예절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다. 복(福)은 내려받는 것이지 올려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굳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다면 부모님께 "새해는 더욱 건강히 지내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너도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세뱃돈을 주면 더욱 기뻐할 것이다.

오늘날의 설은 그 의미가 퇴색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설게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던 설날의 참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소재공파 제25세
이 창 호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매년 3월이 되면 연례행사로 우편물 하나가 집으로 배달돼 온다. 바로 대중회 소식지인 ‘백리’의 원고 요청이다. 그때부터 나의 고민은 시작된다. ‘어떤 글을 적을까?’ 하는...

장남(長男)으로 모친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효도(孝道)에 관한 내용이 좋을까? 아니면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가 좋을까? 또 아니면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人生)에 관한 생각이 좋을까? 등 여러 가지 화두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지금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학일지도 모른다. 가짜뉴스는, 극단의 주장은, 철학 없이 빈곤한 사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속주 삼아 번식해 나가니까. 철학책을 읽는다고 금세 사리 분별이 분명해지고, 없던 통찰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문장을 곱씹어보고, 어려운 단어를 검색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고, 때론 의문을 품으며, 책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은 커질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거짓 선동은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곤 한다. 지금까지 내내 믿고 의지하던 지식이나 신념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관계 등이 갑자기 제자리를 잃고 비틀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삶은 어지러움과 혼란이란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삼킬 기세로 달려들곤 한다. 코린토스의 왕자인 줄만 알고 행복하게 지내던 오이디푸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내려진 무서운 저주를 알게 되었을 때처럼 말이다. 삶의 기반이 뒤흔들리는 경험!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지식이란 지위이든 권력이든 재력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도구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교회나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혼란을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하고는 말년의 오이디푸스처럼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냈다. 현실에서의 삶이 여의찮을 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신전을 찾아가 신탁을 받았다. 신탁이란! 예언의 말이다. 물론 신은 인간의 목소리를 빌려 말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의 신탁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구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에 맞지 않는 모습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내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움직일 때가 많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은 생각일 뿐일 때이다. 상황이 내 생각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일 때 나는 어리둥절하고 화가 난다. 그리고 고통받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칙과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 속에 빠진다. 그때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절감하기보다는 상황과 세상에 대해 화를 내곤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환경과 제도는 거의 모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정연함 속에서 움직인다. 마치 인공적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 덕분에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알아 버린 듯도 한다. 이론은 일어날 법한 모든 것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줄 것 같고, 논리 정연한 이론에 통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장차 일어날 모든 위험을 예상하고 세계를 맘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순간, 세상은 예상을 뒤엎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의 지식이 일면적인 까닭일 것이다. 삶의 전체성은 늘 우리의 지식과 예상의 한계를 넘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게 현실이다.

책을 읽다가 가끔 저자의 나이를 찾아볼 때가 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저자의 출생 연도를 가늠하다 보면 문득 허탈한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 “아니, 나보다 스무해, 서른해, 마흔해는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했을까.” 인생의 무게는 반드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다. 프랑수아즈 사강은 열여덟에 쓴 ‘슬픔이여 안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스콧 피츠제럴드는 스물여덟에 ‘위대한 개츠비’를 세상에 내놓았고, 헤르만 헤세는 마흔을 갓 넘겼을 때 ‘데미안’을 썼다. 그들의 글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 통찰은 도무지 나이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이의 축적만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어른들은 늘 옳고, 나는 아직 모자란 존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어른이라 불리는 나 역시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넘어선다.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있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 여겼지만, 오늘날의 어른다움은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 진정한 어른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회적 책임, 성숙한 마음가짐, 그리고 인간다운 품격으로 어른다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어른이란 나이가 어른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은 아니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세상은 진정한 어른이란 과연 무엇인지, 기존보다 한층 더 깊은 고민과 대답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무기로 사회적 의무는 고사하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게도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서너 명 정도 된다. 직접적인 관련 없이 티브이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경솔하고 부도덕하며 비상식적인 어른들은 어떤 어른보다도 많은 권리를 주장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자신에게 극도로 예의를 갖춰야 하고, 반대 의견과 지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서 되레 큰소리를 치고,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식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기도 한다.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는 후자의 뜻을 곱씹으며 사회적으로 ‘어른’이란 호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어린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몰지각한 나이 든 인간에게 어른의 호칭과 그에 맞는 대우란 어림없는 소리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 말해야 한다.

모호하게 말했지만, 그 책임의 종류는 명확하다. 어린 사람들의 위에서는 것이 아닌 앞에 서는 것. 그로써 먼저 발을 내딛고, 뒤따르는 청년들에게 단단한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즉 모범과 희생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항상 각자가 질 수 있는 정도만 주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이 늘었다고 어른이라 말할 수 없다. 어른이란 보통의 책임에 더해 모범과 희생을 자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어른인 것이다.

누군가는 모진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청년이었고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진정한 어른의 면모가 다름 진정한 어른에게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사전적으로 어른은 ‘나이가 많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나이로 정의할 수 없는 어른다움은, 상황에 따라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을 발휘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른답지 않은 행동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동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어른다운 태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숙한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대화, 더 깊은 이해,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어른다움은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어른다움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인 것이다. 어른답지 못한 순간이 찾아와도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 어른다운 태도로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종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요? 어른으로서 자신과 주변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과 실천을 하도록 합시다.

공손하되 예를 갖추자

백인재공파 제25세
이 형 환

공손하되 예(禮)가 없으면 수고롭고, 삼가되 예(禮)가 없으면 두렵고, 용맹스럽되 예(禮)가 없으면 혼란하고, 강직하되 예(禮)가 없으면 너무 급하다고 공자(公子)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훌륭한 공손함(恭)도 자신을 삼가 낮추는 행위도, 그 무엇도 두려워 하지 않는 용맹함도, 곧은 절개의 정직함도, 예(禮)라는 원칙과 자제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禮)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어떠한 사람들끼리의 규약이며 약속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간사회에서 “예(禮)”는 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지?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산행하다 보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리본이 초행의 산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산행을 마칠 수 있게 하여준다. 예(禮)도 이미 선현들께서 만들어 놓은 준칙을 깨닫고 따라가면 얻는 평온한 질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문학자 김용재 교수는 예(禮)는 두뇌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몸으로 체득된 행동양식이라 하였다. 공자(公子)는 공손함이 지나쳐도 예가 아니라고 하였고 공손하기만 하고 “예(禮)”가 없는 것은 탐탁지 못한 모습이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 행동이 오히려 육체적 수고라고 했다.

사람의 모든 행위에서 예(禮)는 약속이나 규율과 같은 것이면서 조화로우심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소식지 12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12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 마시고 보내주시면, 정성 들여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소식지의 성격** :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선조 이야기, 소문중 소식 또는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사천(동성)문화 등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12호 발행 일시** : 2026년 3월말, 대중회 춘향제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중회 사무국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gm@gmai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제24세, 010-2586-2094)